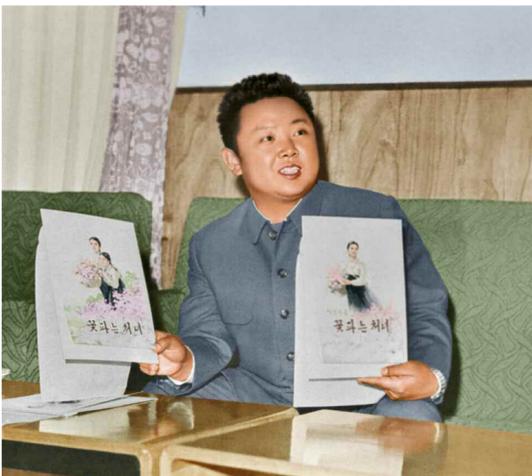




#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9(2000)년 12월  
→ 4.15문학창작단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6(1987)년 4월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 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1(1972)년 10월

만수대예술단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2(1973)년 1월

혁명영화 《조선의 별》 야외 촬영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9월



혁명연극 《성황당》 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7(1978)년 6월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7(1978)년 6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5(2006)년 1월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3(1984)년 4월

원정경기를 떠나는 체육인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2(1973)년 4월

함흥구강병예방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0(1981)년 6월

은 나라에 창조와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 밑에 세상에 자랑할만한 기법비적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폭풍처럼 나가는 선군조선의 위용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창조와 건설로 들끓었던 지난 세기의 년대들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젖어오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 조국 땅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세련된 명도 밑에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마려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비약하는 오늘 우리의 투쟁과 전진을 얼마나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는 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이 다가올수록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로 이 땅에 민족적통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 절세의 위대한 대인 그리움을 갈망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명도 밑에 온 사회를 김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비약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사회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의 기치 밑에 창조와 건설을 다그쳐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구상이였다. 해초는 봉산바다에서 다신 《조선의 너를 빛내리》의 맹세에도 그 숭고한 뜻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것인가.

역사의 그 깃발을 지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승연하게 안겨온다.

무릇 창조란 인간활동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인간들의 창조활동이 모두 똑같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과 진행과정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바로 창조활동이다.

그 주체는 리유의 하나는 바로 창조활동의 출발점과 기준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을 생긴것이라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오히려 누가 새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아니니라. 새것으로 되자면 사회발전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아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세계적인 창조와 불멸의 사상이였다.

그이의 창조적사색과 활동, 명도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가.

인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 번 자신을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어느 한시도 인민을 위하여 마음쓰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하기에 인민을 위하여, 인민이 바라는데로, 인민이 좋아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리념이었다.

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칭을 받으신적이 있었다.

그것은 건축물의 합력과 불합력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물음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지난 시기에 없었던 건물이 이 땅에 솟아났다고 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건축물의 형성안에

#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 속도전의 불길속에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를 펼치시어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천리마에 태워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았다면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을 만리마에 태워 속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긍지높이 교시하시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명도력은 혁명적이든 전투적인 구호로 천만대중을 산악같이 일떠세우신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된 격조적인 구호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현저하게 자극하는 불길속에서 마려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비약하는 오늘 우리의 투쟁과 전진을 얼마나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는 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이 다가올수록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로 이 땅에 민족적통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 절세의 위대한 대인 그리움을 갈망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명도 밑에 온 사회를 김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비약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사회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의 기치 밑에 창조와 건설을 다그쳐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구상이였다. 해초는 봉산바다에서 다신 《조선의 너를 빛내리》의 맹세에도 그 숭고한 뜻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것인가.

역사의 그 깃발을 지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승연하게 안겨온다.

무릇 창조란 인간활동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인간들의 창조활동이 모두 똑같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과 진행과정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바로 창조활동이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을 생긴것이라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오히려 누가 새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아니니라. 새것으로 되자면 사회발전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아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세계적인 창조와 불멸의 사상이였다.

그이의 창조적사색과 활동, 명도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가.

인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 번 자신을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어느 한시도 인민을 위하여 마음쓰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하기에 인민을 위하여, 인민이 바라는데로, 인민이 좋아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리념이었다.

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칭을 받으신적이 있었다.

그것은 건축물의 합력과 불합력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물음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지난 시기에 없었던 건물이 이 땅에 솟아났다고 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건축물의 형성안에

달아오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의 비범성은 70일전투의 중심과력을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파시되었다. 체취공업과 수송물제를 비롯하여 70일전투에서 돌아야 할 중심과력을 명백히 밝혀주시 그이께서는 중앙과 도의 책임인원들이 아래에 내려가 강한 사상 선약같이 일떠세우신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된 격조적인 구호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현저하게 자극하는 불길속에서 마려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비약하는 오늘 우리의 투쟁과 전진을 얼마나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는 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이 다가올수록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로 이 땅에 민족적통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 절세의 위대한 대인 그리움을 갈망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명도 밑에 온 사회를 김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비약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사회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의 기치 밑에 창조와 건설을 다그쳐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구상이였다. 해초는 봉산바다에서 다신 《조선의 너를 빛내리》의 맹세에도 그 숭고한 뜻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것인가.

역사의 그 깃발을 지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승연하게 안겨온다.

무릇 창조란 인간활동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인간들의 창조활동이 모두 똑같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과 진행과정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바로 창조활동이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을 생긴것이라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오히려 누가 새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아니니라. 새것으로 되자면 사회발전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아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세계적인 창조와 불멸의 사상이였다.

그이의 창조적사색과 활동, 명도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가.

인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 번 자신을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어느 한시도 인민을 위하여 마음쓰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하기에 인민을 위하여, 인민이 바라는데로, 인민이 좋아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리념이었다.

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칭을 받으신적이 있었다.

그것은 건축물의 합력과 불합력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은 빠른산속시범으로 70일전투의 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뛰어난 명도실력에 대한 값높은 평가였다.

시대를 놀래우며 건설된 은물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며 무산-정진사이 장거리정광수송관 등도 위대한 그의 정력적인 명도 밑에 마려던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창조물들이었다.

속도전의 전격나팔소리, 혁명의 북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던 1970년대처럼 우리 인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 일본에서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리상적으로 결합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전격력은 1980년대에 또 얼마나 놀라운 기록들을 안아왔는가.

20리 날바다우에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일떠세워진 해상교량과 건설의 영재이신 그이의 탁월한 명도력을 파시한 또 하나의 세계적 창조물이다.

인류는 인간이 도달한 힘의 절정도, 위인이 펼쳐수 있는 비범한 명도력의 극치도 서해갈문건설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

김의 제3선광양이며 1만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의 손길과 태어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시대를 격동시키고 세상을 놀래웠다.

한번의 호소로 전당을 동원하고 전민을 들끓게 하며 하나의 구명도 20리, 전군이 펼쳐일어나게 하는 능숙한 조직적수완, 대담하고 작전적이고 통이 크게 일민을 벌려버린 립체적

으로 전개하고 전격적으로 내밀어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는 혁명적전격력, 그러면 모방과 교조도 허용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창조물들을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일떠세우는 비범한 창조력, 바로 이것이 창조적 거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력의 특징이었다.

평양안영기와 더불어 전해지는 사연들은 또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인가.

주제 64(1975)년 3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평양시건설문제를 놓고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 한 15년동안 평양시건설을 맡아 지휘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 평양시건설에서 친지개혁을 일으켜 온 세상 사람들이 황룡강에 잠겨 평양을 바라보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시였다.

미칠후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나가는 평양시건설에서도 속도전을 벌려 기록을 창조하고 우리 평양의 려사에 평양안영기를 기록하여 주시라 하시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수도건설 나가는 평양시건설에서도 속도전을 벌려 기록을 창조하고 우리 평양의 려사에 평양안영기를 기록하여 주시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5년동안 평양의 모습에서 친지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5년동안 평양의 모습에서 친지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시였다.

무릇 창조란 인간활동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인간들의 창조활동이 모두 똑같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과 진행과정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바로 창조활동이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을 생긴것이라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오히려 누가 새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새것으로 되든것도 아니니라. 새것으로 되자면 사회발전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아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세계적인 창조와 불멸의 사상이였다.

그이의 창조적사색과 활동, 명도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가.

인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 번 자신을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어느 한시도 인민을 위하여 마음쓰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하기에 인민을 위하여, 인민이 바라는데로, 인민이 좋아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리념이었다.

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칭을 받으신적이 있었다.

그것은 건축물의 합력과 불합력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물음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은 빠른산속시범으로 70일전투의 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뛰어난 명도실력에 대한 값높은 평가였다.

시대를 놀래우며 건설된 은물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며 무산-정진사이 장거리정광수송관 등도 위대한 그의 정력적인 명도 밑에 마려던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창조물들이었다.

속도전의 전격나팔소리, 혁명의 북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던 1970년대처럼 우리 인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 일본에서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리상적으로 결합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전격력은 1980년대에 또 얼마나 놀라운 기록들을 안아왔는가.

20리 날바다우에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일떠세워진 해상교량과 건설의 영재이신 그이의 탁월한 명도력을 파시한 또 하나의 세계적 창조물이다.

인류는 인간이 도달한 힘의 절정도, 위인이 펼쳐수 있는 비범한 명도력의 극치도 서해갈문건설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

김의 제3선광양이며 1만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의 손길과 태어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시대를 격동시키고 세상을 놀래웠다.

한번의 호소로 전당을 동원하고 전민을 들끓게 하며 하나의 구명도 20리, 전군이 펼쳐일어나게 하는 능숙한 조직적수완, 대담하고 작전적이고 통이 크게 일민을 벌려버린 립체적

으로 전개하고 전격적으로 내밀어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는 혁명적전격력, 그러면 모방과 교조도 허용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창조물들을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일떠세우는 비범한 창조력, 바로 이것이 창조적 거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력의 특징이었다.

평양안영기와 더불어 전해지는 사연들은 또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인가.

주제 64(1975)년 3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평양시건설문제를 놓고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 한 15년동안 평양시건설을 맡아 지휘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 평양시건설에서 친지개혁을 일으켜 온 세상 사람들이 황룡강에 잠겨 평양을 바라보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시였다.

미칠후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나가는 평양시건설에서도 속도전을 벌려 기록을 창조하고 우리 평양의 려사에 평양안영기를 기록하여 주시라 하시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수도건설 나가는 평양시건설에서도 속도전을 벌려 기록을 창조하고 우리 평양의 려사에 평양안영기를 기록하여 주시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5년동안 평양의 모습에서 친지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5년동안 평양의 모습에서 친지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시였다.

무릇 창조란 인간활동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인간들의 창조활동이 모두 똑같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과 진행과정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바로 창조활동이다.

#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는 근본지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전적으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년이 되었다.

주제 102(2013)년 12월 8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건설에서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적사상을 창조하고 건설부문의 혁신의 불꽃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건설에서 대번영의 불길로 세계를 타격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같은 의지가 뜨겁게 어려있는 기념비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건설부문의대담성을 조직한 당의 의도와 건설부문에 나선 임무와 목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명도 밑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세계를 주름잡으며 기적과 전변을 이룩하여 온 자랑찬 전승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따라 우리 조국의 눈부신 건설성사를 펼치기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났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오늘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루어져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건축창조사상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탁월한 일떠세우는 만민대중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들의 창조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군로를 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지난 1년간 우리 조국땅에 솟아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건축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파시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은 건설에서 인민대중의이익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초석이다.

건축은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에 충족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모든 건설에서 이 땅의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익의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이익의건축이며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여기에에는 주체적건축창조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것이 기본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당이다. 우리 조국의 건설력사와 더불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불려오는 기념비적건축창조물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존엄있는 존재로 여기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의이익의건축창조가 인민을 고귀한 결정체였다.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편익부터 먼저 생각하고 인민에게 보전위생이며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사상이 뜻이 밝혀졌다. 지난 1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워진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개가 비껴있다.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 미감을 갖춘 건축예술품이 아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건설되었을뿐 아니라 질풍은 거구름들도 일으키고 갖추어지고 있으며 그 주변에 과학성이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는 공간까지 덧붙여져 꾸려져있다. 평양안영기와 애육원도 보육실, 교양실, 잠방, 세면장, 놀이장, 자연관찰실은 물론 식량과 의자에 이르기까지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개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편리하게 꾸려져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상, 후대사상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명도를 받드는 길에 자신들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불변의 신념으로 건축창조에 주인답게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은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 불타는 애국충정과 진취성을 일깨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건축창조에서는 자기 나라의 실정과 민족적특성, 인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를 건축물에 철저히 반영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 식의 건축창조의 근본비결이 있다.

자기 땅을 밟고 보는 세계를 보는 자신만만한 민족적자존심으로 건축에서 세계를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당의 결심은 곧 실정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한 독특한 우리 식의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왔다. 지난 1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워진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개가 비껴있다.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 미감을 갖춘 건축예술품이 아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건설되었을뿐 아니라 질풍은 거구름들도 일으키고 갖추어지고 있으며 그 주변에 과학성이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간이다.

건축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완벽하게 융합할 때 민족성이 살아나고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건축물을 창조할수 있으며 건축을 오로지 민족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적형식에 당의 숭고한 인민사상, 후대사상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명도를 받드는 길에 자신들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불변의 신념으로 건축창조에 주인답게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은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 불타는 애국충정과 진취성을 일깨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건축창조에서는 자기 나라의 실정과 민족적특성, 인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를 건축물에 철저히 반영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 식의 건축창조의 근본비결이 있다.

자기 땅을 밟고 보는 세계를 보는 자신만만한 민족적자존심으로 건축에서 세계를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당의 결심은 곧 실정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한 독특한 우리 식의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왔다. 지난 1년이라

#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수놓아지던 날에

불라는 창조적 열정

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선물하는것은 나의 행복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

그이의 특출한 창조력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설계형성안을 지도하시던 날에도 뚜렷이 발휘되였다.

당시 해당 부문 일군들은 《꽃봉오리》, 《해바라기》, 《새날》, 《수정》이라고 이름지은 4가지 형성안을 그에게 물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형성안을 이미 있는 건축물들을 모방한것이라고, 다시 만들라고 하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새로 만든 형성안을 보여주시였다. 《해바라기》, 《별무리》, 《애물러》, 《로부》, 《별》, 《새날》, 《수정》, 《탑구》, 《꽃》이라고 이름을 단것들이었다.

이 형성안들을 다 보고나신 그이께서는 매 형성안의 부족점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

변에도 9가지의 설계형성안이 이미 건설한 건물들과 유사성이 있는것으로 하여 다 부결되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에 없었던 건물들이 어떻게 솟아났다고 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창조물은 말그대로 새

창조물은 오로지 하나뿐 아니라 먼 날에 가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기념비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어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인류적인 가치와 의의를 가진 것만이 기념비적인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하나를 창조해도 기념비적인것을 창조하는것이 나의 창조활동의 목표이며 리상입니다. ...

주체사상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창조활동의 목표와 리상을 증시하는 시대의 기념비이다.

주체사상당건설을 몸소 맡기하신 그이께서는 형성안의 의도

것이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사소한 모방이 없는 새것을 창조할 때라야 새로운 창조물이 될수 있다는 립장에서 아이들의 궁전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창조력을 자랑하며 오늘날도 높이 솟아있다.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룡적인 명도적기질이였다.

은물방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은 그이의 출중한 명도력을 파시하는 려사적창조물로 우리 당역사에 수놓아져있다.

내 생각에는 벨트콘베아를 바다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이께서는 바다로 옮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의 단호한 결심 앞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박토치리를 위한 콘베아를 바다까지 옮겨야 한다는데 놀라바다 한가운데까지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붉은색 연필로 지도를 가리키시였다. 그이의 손길을 따라 금산로부

3대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첫자리에 주체사상당을 놓아야 한다고, 주체사상당은 기념비의 표준이라고 감동에 넘쳐 말하였다.

수원정보의 새마을! 일군들의 가슴은 울렁거리고 설렘이었다. 그런즉 우한거리로 바다를 말리던 버럭산들이 바다를 밀고나와 보물제방으로 변하게 될것이 아닌가!

에로부터 자연개조의 극한점을 산을 허물어 바다를 메우는 일에 비유



# 원한의 땅 신천은 극악무도한 살인마 미제를 고발한다

3만 5 000명, 우리는 원한의 땅 신천을 이 수자로 먼저 기억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신천땅을 강점했던 미제수용자들은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

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원한의 땅에서는 오늘도 흉년새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나는것만 같고 눈을 감지 못한 사백어머니와 백돌어린이 원

수를 어서 갚아달라고 웨치는 듯 평화로워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총혈귀와 식인종을 굳이 책에서 찾지 말라. 영화에서 상상하지 말라.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인간의 두뇌

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식인종무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주는 조선의 신천에 오라. 《인간옹호》를 넘볼치못 위우는 미제가 과연 어떤 흉물스러이 살인마들인가를 역사의 고발장인 여기 신천에서 보라.

물어 아니라 피가 흐른 서강 서당교는 당시 구월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우리인민들은 이 다리를 건너 구월산에 찾아들어갔고 또한 이 다리를 건너와서 원수들

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군 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미제원수들은 다리를 차단하고 오가던 인민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다리위에 세우고 칼로 목을 자르고 총으로 쏘고 총알로까지 무려 2 000여명이나 강물에 처넣어 학

살하였다. 해방후 풍년의 기쁨을 실어나르던 서당교는 야수들의 인간도살장으로 변화하였다. 서당교야에 서당에서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 무고한 인민들의 시체가 하얗게 떠서 강을 메웠다. 그속에는 아직 엄마라는 말조차 불려보지 못한 피영어들도 많았다.

## 나는 신천의 103번째 어린이다!

신천의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우리는 또다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학생 시절 우리를 맞아주었던 그 얼굴에 얼기설기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10여년전과 같이 변함없이 있었다.

오랜 세월 화약창고와 그 한 자리에 서 떠나지 못한 로인, 올해 68살인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을 강점하였던 미제야수들의 학살만행현장에서 구사업으로 살아난 신천박물판 명예관장 주상원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우리 혁명의 주된 투쟁대상입니다.》

지적에 있는 사백어머니묘와 백돌어린묘를 이윽도록 바라보던 주상원은 불꽃튀는 눈길로 화약창고를 가리켰다. 《바로 미군놈들이 이 화약창고에서 백돌어린들을 학살하였습다.》

중으로 떨리는듯 한 그의 이야기는 60여년전으로 거슬러갔다. 그날따라 달은 왜 그렇게도 밝았는지. 악귀같은 놈들에게 끌려 어

머니의 등에 업힌 그가 형들과 함께 밤나무골 화약창고에 이르렀을 때 창고안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빨갱이》 중자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미군우두머리 해리스논의 명령에 따라 원수놈들은 신천의 거리와 마을을 미친 개처럼 자다다니다 다니는대로 체포해들었던것이다. 그날은 주상원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등에 마지막으로 업혀본 날이었다.

다음날 화약창고에 나타난 해리스논이 《조선의 어머니와 애새끼들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다. 어머니와 애새끼들을 서로 갈라놓아 간이 마르고 피가 말라라게 하라.》고 명령했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주상원은 두 형들과 함께 웃창고에, 어머니는 아래창고에 갇히게 되었다. 온 밤나무골안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애려대 찾는 어머니들의 피타는 웨침, 어머니들을 부르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으로 차고넘쳤다.

이렇게 되어 주상원은 두 형들과 함께 웃창고에, 어머니는 아래창고에 갇히게 되었다. 온 밤나무골안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애려대 찾는 어머니들의 피타는 웨침, 어머니들을 부르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으로 차고넘쳤다.

아수같은 놈들은 아이들에게 1주일동안 먹을것을 조금도 주지 않았다. 매일같이 찾아 온 창고바닥을 헤매는 어린이들의 손발, 발톱은 다 닳아 없어지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 온 창고바닥을 적셨다.

원수들은 지척에 있는 엄마를 목더러지게 찾으며 밥달라, 물달라 아우성치는 천진관만한 어린 것들에게 먹을것 대신 휘발유를 퍼다주었다.

휘발유가 물인줄 알고 마시고는 조여드는 자기 가슴과 머리카락을 안타까이 쥐어뜯다가 차디찬 창고바닥에 쓰러지던 아이들이 마지막으 엄마를 갈라라에서 흐르는 피를 엄마의 젖ит을 알고 빨다가는 입에 문채 영영 눈을 뜨지 못한 것들이었다.

《눈을 떠보니 아이들의 시체가 무겁게 나를 내려두고있습다. 그 끔찍한 시체들사이를 네발걸음으로 기어다니며 온 몸을 떨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상원은 이렇게 미제야수들의 손에 부모형체를 모두 빼앗겼었다. 원수놈들은 당시 신천군 정미공장에서 일하던 그의 아버지 주준일을 모반도동자라고 하여 주준일의 딸지에게 다리 를 갈라라고 소를 반대방향으로 몰아서 산 사람의 사지를 썰어 학살하였다.

당의 품에 안겨 교아의 설움을 모르고 자라난 주상원은 계급의 총을 어깨에 걸었다. 제대후에는 계급교양전지를 지켜 신천박물판의 강사가 되었다.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수많은 외국인들앞에서 그는 하

## 미제야수들의 도락은 인간살육

죽음의 온천 열음 창고 1950년 10월말 수많은 인민들이 감금된 온천열음 창고안에 나타난 해리스논은 《시범동작》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온천열음창고에는... 매일 같이 교묘를 받아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 사람들, 발한술갈, 물 한모금 주지 않아 배고고 아우성치는 어린이들

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키가 크고 무겁게 생긴 늑이 나타나 무엇이라고 지껄이지 미제승냥이놈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창고에 개들을 몰아넣어 들어들게 하였는데 얼굴과 몸에서 살점이 떨어지 시작되자 줄줄 흐르던 창상들이 보이고 미제원수놈들에게 항거하여 싸우던 분노의 웨침이 지금도 귀전에 생생히 울려오는지 갑니다.》

두 발 가진 승냥이 더 힘처게 불렀다. 약에 반친 미제야수들은 이리저리 달려들어 도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뇌수가 쏟아져나오는 터진 그의 머리에 버섯을 마구 쏘서 넣으면서 야수들은 《너는 죽어서도 실컷 가마나 짜라.》라고 뇌가했다.

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키가 크고 무겁게 생긴 늑이 나타나 무엇이라고 지껄이지 미제승냥이놈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창고에 개들을 몰아넣어 들어들게 하였는데 얼굴과 몸에서 살점이 떨어지 시작되자 줄줄 흐르던 창상들이 보이고 미제원수놈들에게 항거하여 싸우던 분노의 웨침이 지금도 귀전에 생생히 울려오는지 갑니다.》

김승철 필을 알아내려고 발악했지만 그의 대답은 변함없이 없었다. 《나는 모른다. 죽일테면 죽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신생년들을 학살한 놈들에게 굴복할 소년단원은 이 세상에 한명도 없다!》

《그의 모교였던 락도인민학교(당시)는 오늘 조봉옥사교로 불리고있다. 김승철

을 부르고 주장하는 미국이 이런 반인륜적이고 위락하고 형인할수 없는 악행들을 감행한데 대하여 치를 떨지 않을수 없다. 현재 그들은 살인과 파괴, 악행을 일삼고있다. 《도이침판단참판단 만프레드 슈나이데르》

《오늘 우리는 온갖 물리와 인간성이 결여된 야만적인 만행들을 보았다. 이런 만행들은 인류에게 절대로 접수될수 없으며 정당화될수 없다. 미군이 감행한 야수적행위와 살육만행은 그들의 비인륜성과 비인간성을 보여주고있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부르는 미국의 이마우에 영원한 흑점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에리트르포보데표단 마그다아 부 헤이르》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만행을 감행할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국국제정책연구단 글린포드)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나의 명령은 곧 법이다. ... 신천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것을 제거우속에 파묻으라.》

이것은 1950년 10월 중순 신천땅에 기여들었던 미군우두머리 해리스논이 강경 첫날내 내린 살인명령이다. 총혈귀 미제의 군화발이 찍힌 그 시각부터 신천땅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감행이 감행되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신천군에서 미제침략자들이 히틀러괴쑈도당을 틀가하는 가장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월 18일 아침 해리스논의 지휘밑에 첫 대학살만행이 시작되었다. 죽은 후에도 누가 누군지 알수 없게 하라! 해리스논의 명령에 따라 미제승냥이들은 당시 신천군당청사 2층에 감금하였던 9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의 옷을 모두 벗겨 머리에 씌운 다음 그들을

5~6명씩 결박하여 군당청사의 방공호에 밀어넣었다. 출입문을 봉쇄한 놈들은 천정에 있는 공기구멍으로 휘발유를 붓고 인화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살라는 냄새와 아찔러운 비명, 신음소리가 방공호안에 찍 들어왔다. 미제야수들은 방공호

호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창으로 찌르고 총알로까지 방공호에 쏟아넣고는 방공호문을 흉가마니로 막아버렸다.

시체가 불타서 방공호바닥에 쌓이면 그우에 또 다른 사람들을 몰아넣고 또다시 불이 켜지면 또 그렇게 태우고... 43.2㎡밖에 안되는 작은 방공호는 하루동안에 900여명의 시체로 차고넘쳤다.

불에 새겨놓은 학살현장이 문적문적 떨어져나가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수 없게 된 시체들... 살라는 냄새가 짙 차고 아우성인 매머치는 학살현장에서 해리스논은 이 광경이 《기념》이 된다고 하면서 사진가

지나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바나 이러한 야수의 판결에서 신천땅만이 아닌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하기에 신천박물판의 전사자들을 돌아본 한 도이침판드인은 감상투에 이런 글을 남겼다. 《미군이 이 나라에서 평화적인 주민들에게 감행한 만행들을 보고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수 없다. 해리스논은 히틀러와 다를바 없다. ...전쟁 미국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김철 일



## 화석으로 된 12살 소녀

흔들어깨우면 금시라도 눈을 뜨듯한 같은 소녀, 등에 업힌 어린 동생의 꽃망울같은 입에 있는 《엄마!》 하는 말이 막 튀어나왔던 같다. 신천의 소녀야, 너 어이하여 엄마를 찾는 동생을 업은채 일 어날줄 모르느냐.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미제살인귀들이 로동당원의 딸이라고 해서 3살짜리 동생을 업은채로 석당리에 생매장한 12살 소녀이다. 그의 시체는 1961년 10월에 발굴되었다. 그러나 장안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넘도록 놀랄게도 그의 시체는 생생히 보존되어있었다.

죽어서 묻힌것이 아니라 살아서 묻혔다. 혼자 묻힌것이 아니라

신천의 영원한 12살 소녀는 미제식인종들을 멸망의 무덤에 쓸어버릴 그날까지 계속 살아있을것이다. 새대를 이어 복수를 부락할것이다. 동생과 함께, 살아 묻히던 마지막 그 모습으로!

본사기자



《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미군이 이처럼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학살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누구도 억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증오심에 대해서도 리해할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미국정부가 조선헌정시기 무고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하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워트 샤론)

《그야말로 20세기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만행이었다. 온 세계가 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화염에 싸인 황색야만들의 가슴에서 찢어져나오는 비명소리는 토굴을 무너뜨릴상심였다. 그것들은 불에 단 지점판의 봉어처럼 끈두박질치고있었다. 그러나 나의 신경은 편안하였다. 명령이 정확히 집행되었던 것이다.》

지나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바나 이러한 야수의 판결에서 신천땅만이 아닌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하기에 신천박물판의 전사자들을 돌아본 한 도이침판드인은 감상투에 이런 글을 남겼다. 《미군이 이 나라에서 평화적인 주민들에게 감행한 만행들을 보고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수 없다. 해리스논은 히틀러와 다를바 없다. ...전쟁 미국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김철 일

《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미군이 이처럼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학살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누구도 억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미군이 이처럼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학살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누구도 억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미군이 이처럼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학살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누구도 억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미군이 이처럼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학살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누구도 억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미군이 이처럼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학살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누구도 억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미국인으로서 참을수 없는 수치를 느낀다》

감상 특을 펼 치고 《영국인 폴 존스》 《전시란 모든 자료들과 증거물들은 미국인들에게야말로 조선전쟁시기 악독한 만행을 감행한 야만들이란것을 투득히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을 마구 죽인 미국인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 우리 일본인들도 일본군대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용담 수치 를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 (일본참판단 후시타)

《전쟁이 아무리 잔혹한것이 라고 해도 일반주민들을 살해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하지만 미국은 오늘도 세계에서 똑같은것을 반복하고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일본참판단 이시마시 히 레키》 《미제는 언제나 침략자이고 인류의 원수이다. 놈들의 대량 살육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며 인 간의 말을 쓴 승냥이이며 야수 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아랍학생총동맹 니랄 아 마르)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만행을 감행할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국국제정책연구단 글린포드)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만행을 감행할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국국제정책연구단 글린포드)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일본참판단 이시마시 히 레키》 《미제는 언제나 침략자이고 인류의 원수이다. 놈들의 대량 살육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며 인 간의 말을 쓴 승냥이이며 야수 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아랍학생총동맹 니랄 아 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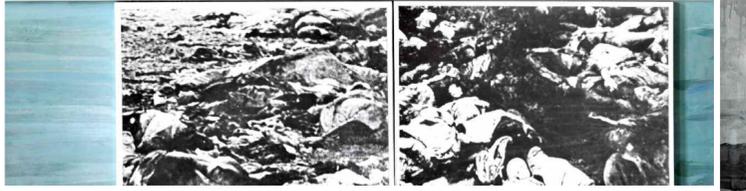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만행을 감행할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국국제정책연구단 글린포드)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일본참판단 이시마시 히 레키》 《미제는 언제나 침략자이고 인류의 원수이다. 놈들의 대량 살육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며 인 간의 말을 쓴 승냥이이며 야수 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아랍학생총동맹 니랄 아 마르)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만행을 감행할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국국제정책연구단 글린포드)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미제야수들이 2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석당교와 그 시체의 일부



백돌어린묘를 화약 창고에 밀어넣고 미제의 만행자료를

## 천 백 배로 복수 하라!

우리는 자비를 모른다 미제승냥이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라! 오늘 원한의 땅 신천은 총천 군민들에게 이렇게 웨치고 있다. 원수들이 총탄 한발울 재우면 우리가 죽은 총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 신천에서 학살된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복수심까지 합쳐 만장약된 혁명의 무기를 더욱 어깨에 틀어잡았다. 미제는 흑마로 알아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은 절대로 자비를 모르며 일단 불을 토하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줄도 남지 않게 쫓아내것을!

조선인민군 관군 문 학 철

사무친 원한 기어이 풀리 나는 지금까지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

《박물판을 돌아보면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선군령장

이민위천을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 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지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눈물겨운 로고가 사후까지 안겨오는 뜻 잇을 12월이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도 선군정자로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고자 한 것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셨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한없이 그리며 그이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단체는 자기 기관지에 실은 글에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국통일위업을 받들어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헌명하게 이끄시어 조국통일의 전향적극면을 열어놓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 인사들이

진행한 어느 한 모임에서는 《거레가 당하는 불멸의 이름을 가세우시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실험을 다바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겨레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진정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인 한 태양 이시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자주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격찬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인민의 한 지식인은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남북통일에 대해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거머쥐어 펼쳐놓으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칙의 신념과 의지, 탁월한 영도력에 의해 력사적인 성상사상들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마련되었다.

정녕 격정없이 새길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심혈속에 민족의 통일운동은 력사의 준엄한 도전을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해오수 있었다.》

새 력사연구회 한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자주세상으로 가는 판본이며 민족적대변영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조국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환난의 대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그에 아부하여 부귀영화와 피하는 보수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쳐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이 성스러운 투쟁의 신념을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시었다. 민족자주! 바로 그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장군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의 신의이다.》

민권연구소의 한 상임연구원은 《역사적인 평양상봉들은 우리 민족끼리 내세운 희망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친다면 민족의 번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어 절제 잘라썼다.》고 주장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형명한 영도가 있었기에 6.15자주통일시대가 개척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야애는 겨레가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대행진곡을 장엄하게 울릴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경모심은 그이의 조국통일운을 철저히 관철하시기 위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걸어가시어 이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찬탄과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으로 이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산을 받들어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기초한 통일운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전진해나가실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민족이 낳은 또 한명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대양으로 영생하시며 조국통일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라는 신념의 웨침이 온 남녘 땅에 차넘치고있다.

였으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그 인민행렬자의 새벽동음은 다시 울릴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성과 조국통일의 렬명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두중기 강철캐드우에...》

민족의 대안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경모심은 그이의 조국통일운을 철저히 관철하시기 위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걸어가시어 이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찬탄과 열화같은 호모의 마음으로 이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산을 받들어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기초한 통일운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전진해나가실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민족이 낳은 또 한명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대양으로 영생하시며 조국통일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라는 신념의 웨침이 온 남녘 땅에 차넘치고있다.

# 여러 나라 단체 인터넷에 특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주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단체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3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 되는 세월이 흘렀다. 지난 3년간은 조선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한없이 고귀하고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온 3년이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 되는 세월이 흘렀다. 지난 3년간은 조선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한없이 고귀하고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온 3년이었다.

우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길이 빛날것이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정일,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도하시어 전쟁에서 당을 명실공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밝히시고 이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도하시어 혼연일체를 이루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 당건설분야에 쌓으신 업적은 승승장구하여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의 수호하신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립되고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진 지난 세기말 세계의 판도는 김정일영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에 집중되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웨방은 허울썩수 없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승리의 합법칙성을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그이의 저작들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지침이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제국주의의 거침없는 압력행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향적극면을 열어놓으셨으며 조선인민자주위업의 강력한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베루조선신문문화협회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3주》, 《백두산과 김일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글들은 주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칭송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우주개발노력

로씨야에서 우주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사에서는 다음해에 바이오프루우주발사장으로써 각이한 위성들을 탑재한 《프로톤-M》운반로켓을 11차례 좌우를 궤도하고있다.

한편 로씨야의 플레세츠크우주발사장에서 최근 운반로켓 《운반로켓-2.16》를 좌우했다. 《운반로켓-2.16》은 《글로나스-K》 위성이 탑재되어있다 한다. 이번 발사는 플레세츠크우주발사장에서 5번째로 되는 《글로나스》계열위성의 발사라고 한다. 1일 항공우주방어군 대변인이 밝혔다.

로보트 개발

이란에서 최근 자체의 힘과 기술로 3가지 종류의 로보트들을 개발하였다. 로보트들은 국경 및 전투지역에서의 감시, 구출, 지휘해 등 군사작전들에 리용될수 있다고 한다. 11월 29일 이스나통신이 전했다.

철도운수분야에서 협조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철도운수분야에서 호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이란과 두르그니스만, 까자흐스탄을 편결하는 920km구간의 철도건설이 완공되어 개통하였다.

마약 반대 투쟁

파키스탄경찰이 최근 나라

의 동부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마약수확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약 40kg의 각종 마약이 압수되고 2명의 범자들이 체포되었다. 3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에이즈방지계획

만나보전성이 2일 에이즈방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에이즈 바이러스감염자를 위한 약품공급을 강화하며 2016년까지 전국의 150개 지역에 에이즈치료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나라에서는 에이즈바이러스 감염률이 종전의 0.94%로부터 0.47%로 낮아졌다고 한다.

# 살인행위가 합법화되고있는 유일한 인권유린국가

자본주의세계에서 (인권의 모범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허물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얼마전 미주리주의 사법당국이 몇몇 월런에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인 백인경찰에게 불기소판결을 내린데 항의하는 시위들이 현재까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전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그런데 또다시 시위자들의 격분을 자아내는 사실이 드러나 불에 기름을 부어주고있다.

최근 뉴욕시의 사법당국이 지난 7월 공판문을 단속하던중 그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경찰에게 불기소판결을 내린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내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연이어 벌어지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심한 《인권보따리》를 펴낼 사이없이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와 국제적으로 망신을 깨고있는 미국의 정상이 가련하게는 되었다.

바빠맞는것은 미국지배층이다. 뉴욕 시사법당국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오바마가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관들이 보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호호하게 발언하였다. 사법판관과 뉴욕시장을 비롯한 공식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이런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것인지 따져보겠다는니, 앞으로 법원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경찰들에게 주겠다는니 뭐니 하는 등으로 변명을

늘여놓았다. 사태가 격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안전함을 쓰고있지만 그것은 공연한노릇이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것치사미 미군이야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인권범죄지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나라나 사실을 통해 미국의 인권제도의 반동성과 불합리성을 다시금 까뻐쳐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것은 법을 집행하는 개별경찰들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것이 아니다. 인종주의가 뿌리깊은 미국의 사회제도에 문제가 있다.

미국은 세계 다른 민족들에 대한 야수적인 침략과 약탈로 살찌운 인종주의국가, 인종주의의 아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반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디언들의 해를더미에서 아프리카흑인들의 피땀을 짜내면서 독버섯처럼 솟아난 나라이다. 국가의 출현과 함께 인종차별은 미국사회의 총천로 화기 되여왔다. 흑인들에 대한 온갖 차별과 멸시의 뿌리깊은 총쳐를 해쳐보자.

《그어느때가 가서는 이 나라가 각성되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진리이다.》는 나의 혼계를 진정으로 실현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1955년 흑인들에 대한 사회회적행위가 심화되면서 미국남부 대안마주의 한 도시에서 흑인들에 대한 베스카

선차별에 항의하는 운동은 주도하면서 미국의 흑인운동지도자로 등장한 마틴 루터 킹이 한 말이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예언한 미국의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인종차별은 오히려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전한데 따르면 2008년에 백인들의 빈곤률이 8.6%인데 비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계주민들의 빈곤률은 백인들보다 거의 3배나 높았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2009년 10월에 백인들의 실업률이 9.5%였다면 흑인청년들의 실업률은 34.5%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9년 11월 23일에 발표된 미연방수사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총 7783건의 인종주의적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

미국에서 현시처럼 인종이 조작되는 인종주의적범죄들은 유색인종에 대한 극단한 사회적차별분위기를 보다 우심하게 만들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를 초래하고있다.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오늘 이 나라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보장한다는 경찰이 사람들의 경각을 자아내는 온갖 인권유린, 인종차별행위에 앞장서고있는것이다. 갱난보다 살인을 더 많이 하고있는 미

국경찰은 그야말로 살인허가증을 받은 사람같이집단이라고 할것이다.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평화적시위에 펼쳐나선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대가 투입되고있는것이 오늘의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다 가 무참히 살해된 마틴 루터 킹이 무덤속에서 오늘의 미국의 현실을 본다면 아마 땅을 치며 통탄하였을것이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여 인종차별이 없게되지않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흑인이 대통령이 된 때에 더 많은 인종차별행위들이 나타나고있다. 대통령을 선택제법들의 폭두각지로 탄압이 높을 때고 법은 사회제도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인종차별을 없앨수 있겠는가.

세상사람들은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통해 이점을 다시금 똑똑히 보고있다. 가슴앓이 겪어 없는것은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그 주제에 《인권보호》와 《인권개선》에 대하여 목청을 높이고있는 것이다.

《세코나 셋이라.》, 《제 주제가 바로 보고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미국에 대고 충고하는 세계의 관심이다.

인권유린의 표본국가인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느냐 《고심》하느냐 자기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무패한 사회제도를 바로잡는데나 더 신경을 쓰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심각한 실업위기

아일랜드에서 11월에 실업자수가 35만 2647명에 달하였다. 3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11월에 실업자수가 451만 216명에 달하였다. 2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10월에 실업자수가 346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5% 늘어났다고 한다. 11월 27일 로동통신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북 조 선, 유 엔, 전 쟁 선 전》

로 씨 아 인 터 네 트 신 문 에 실 린 글

인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이전 위원장이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자유법률가들을 위한 아메리카재단과 포드재단을 통해 미중앙정보국으로부터 자금을 보장받았으며 이 기구의 창시자들속에는 이전 미중앙정보국 장관인 알렌 델레소드 속해 있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전 세계의 좌익법률가들의 기구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대치되어 생겨난 기구였다.

이것을 위해 어떤 조사회위원회가 미합중국내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것 같은가를 묻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구의 5분의 1이 기구를 피하기 위하여 식료품구매에 의존하고있으며 수감자들은 개인적으로 의하여 강제노동으로 리용되고있으며 기구내에 일반 수감자들과 전 정보로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가 일상적인 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인신보호행위들이 중시당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인인도》제에 따라 강제적인 실종을 동반하는 독단적인 감금행위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미국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히 제한되어있고 이종의 자유는 정부가 승인한 나라에만 제한되어있으며 또한 많은 소수민족 특히 흑인, 라틴아메리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행위가 날이 늘어남에 속하여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은 미국정부에 의하여 인민들을 대상을으로 감행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 미국의 대외인들로서 보여주기식문화

를 조직하고 정치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하고있다.

보고서의 단락 12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사회위원회의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주장을 반박하여 2014년 9월 13일 자국의 인권상자에 대한 167페이지짜리 조선인민연구회 보고서에 작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주장은 이 글의 필자뿐 아니라 나토의 지배에 있어는 이런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고 르완다판에서 변호사들이 겪고있는 체재는 비추어볼 때 심각한것이 아닐수 없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검사들에 의한 증인들의 증언위조가 우선적인 조작방법으로 리용되고있다.

조사회위원회에서는 또한 《북북이 두려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많은 외국인방문자들이 자기들의 체재와 정보에 대해 조사회위원회와 의견을 나누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구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속해있는 미국전국법률가조합을 대표하는 변호사표단의 한 성원으로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필자에게 있어서 사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당시 대표단의 방문기록이 미국전국법률가조합의 웹사이트에 실렸고, 그들은 자기들이 조선에 대하여 언급하였는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선언이고 사기였는데 대서문 총격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을 찌른다는것이 대부분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 모든것의 결론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조사회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선전행위였다는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더 명백히 알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약에 따라 인종보장리사회의 로마조약의 성원국으로 되어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회부를 진행할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약성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회위원회는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하였다. 한편 조사회위원회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선전도구로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특별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것으로 요구하였다. 조사회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범죄자국으로 묘사하여 서방사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 준비시키자는데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런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 그리고 최근 말레이시아처럼기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오스트랄리아에서의 G20(20개국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로씨야를 반대하여 위한 선전전략들과 다름없다.

스디슨 형법은 인민법칙적이 불게 되면 전쟁의 앞장들이 곧 발명된다는것이다. 환영할 만 한 정부는 부정적인 선전감파니아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적한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항상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도

말하였다.

이 모든것의 결론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조사회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선전행위였다는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더 명백히 알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약에 따라 인종보장리사회의 로마조약의 성원국으로 되어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회부를 진행할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약성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회위원회는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하였다. 한편 조사회위원회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선전도구로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특별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것으로 요구하였다. 조사회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범죄자국으로 묘사하여 서방사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 준비시키자는데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런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 그리고 최근 말레이시아처럼기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오스트랄리아에서의 G20(20개국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로씨야를 반대하여 위한 선전전략들과 다름없다.

스디슨 형법은 인민법칙적이 불게 되면 전쟁의 앞장들이 곧 발명된다는것이다. 환영할 만 한 정부는 부정적인 선전감파니아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적한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항상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중앙통신